기획 朴·文·安 대선 캠프, 불교 인사 누가 있나

"불교와 민족문화 보존 위해 객관적·합리적 정책 개발해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한달 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 캠프마다 불교조직을 구성하고 불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불교분부장, 천명곤 총괄단장, 민주당 김한정 불교특별위원장, 박수천 특보, 안철수 후보측 임동주 미래불교포럼 대표, 정용정 운영위원장.

새누리당 - 대규모 불교조직 결성

3면의 유력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불교조직을 결성한 곳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캠프 쪽이다. 지난 10월20일 출범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불교분부'는 국회 정각회 감사인 3선의 주호영 국회의원이 분부장을, 조계종 전법단장 계성스님이 상왕 지도사를 맡았다. 또한 원행국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불교분과위원장이 총괄단장을, 김상길 불교나눔봉사실장이 전국상왕분부장 등을 맡았으며 경태진, 박충식, 김원근, 이동근, 손기호, 장세동 씨 등이 상무 팀장을 맡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불교분부 산하 조직으로 성재보원과 세심포럼 등 다양한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 - 민주·시민캠프 이원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의 불교조직은 11월12일 출범(11월9일 현재)하는 당내 공식 불교기구인 '불교특별위원회'와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불자들로 닷모인 '당원이 도반', 후보의 불교와 전통문화정책을 지원하는 '종교평보' 등이 활동 중이다.

불교특별위는 국회 정각회 부회장인 3선의 김정길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창운 당원이 도반 대표가 불교특위 상임부위원장을 맡으며, 여상곤 동제교 의원 문화체육특보가 부위원장 겸 간사 소임을 맡았다. 이와 더불어 이남재, 조용기, 김인대, 선환규, 김혜호, 오재희, 김종림, 장은정 씨 등 30여 명이 부위원장이 선임됐다. 불교특위 고문으로 이종희 전 국회부의장과 선진규 김해 봉하산 토론위원이 선임돼 맡게 됐다.

여와 더불어 문 후보의 핵심보는 선진규 김해 봉하산 토론위원이 노인복지실장을, 박수천 전 민주당 불교특위 수석부위원장과 장은 당원이도반 대표가 불교담당 종교평보, 성재도 전 부산불교교육원장이 문화예술특보를 각각 맡고 있다.

안철수 - 활동가 종심 지원활동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별도의 불교분부가 없는 가운데 가장 먼저 불교조직을 결성하고 불심 잡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 대규모 불교조직 결성

3면의 유력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불교조직을 결성한 곳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 쪽이다. 지난 10월20일 출범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불교분부'는 국회 정각회 감사인 3선의 주호영 국회의원이 분부장을, 조계종 전법단장 계성스님이 상왕 지도사를 맡았다. 또한 원행국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불교분과위원장이 총괄단장을, 김상길 불교나눔봉사실장이 전국상왕분부장 등을 맡았으며 경태진, 박충식, 김원근, 이동근, 손기호, 장세동 씨 등이 상무 팀장을 맡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불교분부 산하 조직으로 성재보원과 세심포럼 등 다양한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 - 민주·시민캠프 이원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의 불교조직은 11월12일 출범(11월9일 현재)하는 당내 공식 불교기구인 '불교특별위원회'와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불자들로 닷모인 '당원이도반', 후보의 불교와 전통문화정책을 지원하는 '종교평보' 등이 활동 중이다.

불교특위는 국회 정각회 부회장인 3선의 김정길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창운 당원이 도반 대표가 불교특위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상곤 동제교 의원 문화체육특보가 부위원장 겸 간사 소임을 맡았다. 이와 더불어 이남재, 조용기, 김인대, 선환규, 김혜호, 오재희, 김종림, 장은정 씨 등 30여 명이 부위원장이 선임됐다. 불교특위 고문으로 이종희 전 국회부의장과 선진규 김해 봉하산 토론위원이 선임돼 맡게 됐다.

여와 더불어 문 후보의 핵심보는 선진규 김해 봉하산 토론위원이 노인복지실장을, 박수천 전 민주당 불교특위 수석부위원장과 장은 당원이도반 대표가 불교담당 종교평보, 성재도 전 부산불교교육원장이 문화예술특보를 각각 맡고 있다.

안철수 - 활동가 종심 지원활동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별도의 불교분부가 없는 가운데 가장 먼저 불교조직을 결성하고 불심 잡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혁 기자 parkmh@buddyo.com

■ 이장희의 산사 스케치 여행 〈10〉 강화 전등사

깊은 사연 가진 나무는 경내를 밝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사찰은 3대 정사(精舍)? 고증된 사료는 아니지만 전해오는 이야기들는 강화도의 전등사라고 한다. 신라에 불교를 전파했던 고구려의 승려 아도화상(阿道和尚)이 318년고구려 소수림왕11년)에 세운 창문 진종사(眞宗寺)가 기원이었다. 그런데 고려 충렬왕의 왕비인 정화궁주가 이 절에 옥등(玉燈)을 시주하면서 전등사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전등(傳燈)이란 '불법(佛法)의 등불을 전한다'는 말로 여기서는 법맥을 잇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은행나무 '성'을 바꾸어 절을 지키다

그렇게 이 땅에서 가장 오랫동안 등불을 이어온 전등사의 가람은 특히 아름답다. 우리나라 어느 사람인들 이 가을에 아름답지 않겠느냐만 전등사에 있는 깊은 사연을 가진 나무들은 또 다른 가람보다로 경내를 밝히고 있었다.

그 가운데 성(姓)을 바꾸어가면서까지 절을 지킨 커다란 은행나무는 전등사의 자랑거리다. 숙유어불정행(叔惟御佛淨行) 조선 후기, 나라에서는 이 절에 은행열매의 공출량을 과하게 부과했다. 불교에 대한 탄압의 구실이었다. 은 산을 해집고 다니도 공출량에는 턱 없이 부족하던 스님들은 해마다 모진 탄압을 견뎌내야 했음은 뻔한 일이다. 이에 스님들은 한데 모여 거대한 은행나무가 아예 은행을 맺지 않게 삼일기도를 드렸고, 은행나무는 바로 수나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야 조용해서는 은행나무의 신통력을 생각해야 전등사와 스님들을 다시는 괴롭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젊은 피어도 열매는 한 번도 맺지 않았다는 이 거대한 은행나무는 근래 들어 거덕이 많이 약해져 가지를 모두 쳐내야만 했다. 가둔만 보아도 본래 얼마나 큰 나무였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어 안타까움만 더해진다. 600년이란 세월이 결코 짧은 날은 아니었을 테. 그저 충충 빌고 있어나 뒤기원해 본다.

밤이 오면 또 다른 불을 밝힐 것…

은행나무를 그려봤어 하고 자리를 잡아 앉았다. 물끄러미 은행나무를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인간의 짧은 수명으로 나무를 걱정하는 내 모습이 덮쌓여 자꾸 웃음이 나왔다. 아차피 천수를 누리는 은행은 하늘이 정해준 것을. 나는 은행나무에 대한 측은함을 떨쳐냈다. 그리자 나무의 모습은 더욱 숭고해보였다. 그러보려긴 마음도 바뀌어 자리에서 일어나 대웅전 앞마당으로 올라섰다.

경내 한 가운데 커다란 느티나무가 수령도 몇지게 가지를 드러우고 있다. 하지만, 무성이 그리도 급했을까, 400살이 넘은 느티나무는 한껏 노닐게 불든 가람일을 벌써 부터 앞심의 뒤기어 내고 있었다. 할아버 오후의 옛상이 나무의 그림자를 더 없이 가볍 있는 부끌처럼 뻗쳐 그려냈다. 나무는 마치 그림자로 모든 천기들을 어루만지려는 듯 깊게 뻗어 갔내를 휘감아 들 거세다. 그 사이로 내 그림자를 얹어 본다. 얼마 후 저녁 어스름 속의 전등사에 내 그림자도 나무의 그림자도 모두 하나가 되어 사라졌다. 이제 또 하루의 밤이 오면 전등사는 다채롭게 새로운 불이 달을 또 다른 새로운 불을 밝힐 것이다. 이 땅에서 가장 깊게 이어져 온 절집의 하루가 그렇게 밤으로 전해져 가고 있었다.

이장희 일러스트레이터 www.ttthat.com

"바둑으로 화합…소외이웃 돕기"

'종교문화예술인바둑축제' 상금 기부

서산 서광사 주지 도신스님이 지난 6일 한국불교여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스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종교, 제1회 종교문화예술인 바둑축제' 상금 1000만원을 자비 1등기금으로 후원했다. (사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종교간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련한 이번 대회가 더 발전하길 기원한다"며 "내년부터 기틀이나 기독교 모금기관에서 후원해 행사를 개최하는 의미를 되새겨보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도신스님은 "원장 스님이 항상 소통과 화합을 강조해 행사명도 특강이 됐다"며 "대회를 무준비 열어 종교 화합의 가치실현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전날사에는 조승철 목사, 박성교 아마극수, 이광구 일요신문 바둑해설가가 등이 참석했다.

종다로 기자

범어사 총림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범어사 신도회장 이윤희 외 신도일동 -

범어사 신도회, 합창단, 다도회, 청년회, 관음회, 지장회, 수월회, 토요참선회, 포교사회, 범어사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 대한불교조계종 디지털대학 총동문회 부울경 법우회, 어린이회, 중고등학생회, 금정구청불자회

釋利大本山 金井山 梵魚寺